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신청 받는다

☞ 부안=방선동 기자 | ⌚ 승인 2025.01.23 12:00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부안상설시장, 터미널,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부안상설시장, 터미널,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활동을 펼쳤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씩 연 48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공사 김완중 부안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간담회, 읍면 순회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지역축제, 미디어 등을 활용해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부안=방선동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안=방선동 기자